

양성평등, 백신 접종에 비유한 실천 수기 최우수상

국방부,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육아휴직 경험 담은 카툰 우수상
수상작 성인지 교육 홍보 자료 활용

육군사관학교 훈육관 박현우 소령이 '국방부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육군1군단 박성종 상사는 우수상을 차지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군내 양성평등 관심을 제고하고, 성인지 감수성 확산의 하나로 개최한 국방부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성 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예방'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등을 주제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장병·군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수기 159편과 카툰 19편 등 총 178편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국방부는 내무위원 예심·본심을 거쳐 8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박 소령의 수기 '나와 모두의 삶을 지키는 양성평등 백신 예방접종'은 육사 생도들의 양성평등 의식개선 활동과 성과를 소개한 작품이다. 박 소령은 1단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2단계 '양화대교 소그룹 토의', 3단계 '양성평등 대토론회' 등 3단계 의식개선 활동이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백신 예방접종'으로 묘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련 기고 19편

우수상을 받은 박 상사는 '육아휴직, 그녀 의존감을 지켜줘!'라는 카툰으로 2년 연속 우수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 작품에는 육아휴직 때문에 낮아진 아내의 의존감을 회복하고, 일-가정의 균형을 맞춰 나간 경험이 담겨 있다.

장려상은 국방시설본부 노현석 해병소령의 수기 '여군은 없다'가 받았다. 성 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남군' '여군'이 아닌 전 우로서의 사례를 소개한 글이다. 국방조사본부 김가희 육군소령의 '삶의 한 문장, 내 마음 속 광화문 글판', 777사령부 김영은 군무주무관의 '행복한 가족의 시작' 카툰, 해군교육사령부 우차섭 군무주무관의 '남자는

핑크지!', 육군73여단 윤지훈 중사의 '양성평등-여군? 남군? 중요한 건 노력!' 카툰, 공군군수사령부 이상호 군무주무관의 '필승! 집으로 출근하겠습니다'가 참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국방부 장관상과 기념품이, 참가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수여됐다.

국방부는 "우수작은 향후 e-book으로 만들어 성인지교육 및 양성평등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군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공감·소통할 수 있도록 장병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환 기자



미국 오렌지카운티에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준공식'에 참석한 국가보훈처 오진영 선양국장(가운데)과 주요 내빈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엔 건립된 기념비에는 6·25에서 산화한 미군 전사자 3만 6591명의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국방 AI 인재양성 나아갈 방향 모색

육군사관학교, AI 교육발전 세미나

육군사관학교(육사)는 지난 12일 국방부, 육군본부,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정보통신학교 등 인공지능(AI) 교육 관련 관계자 50여 명이 모여 'AI 교육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김정수(중장) 육군사관학교장 환영사와 박준범 국방부 국방ICT지원단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이어 △사관학교 AI 교과 설계 △일반대학교 AI 교육 △스마트 캠퍼스 구축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열렸다. 참가자들은 AI 교육을 위한 전공·교과 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을 했다.

첫 번째 '사관학교 AI 교과 설계' 세션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시행하는 교과 설계를 비교 분석하고, 전공·교양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안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일반대학교 AI 교육' 세션에는 세종대학교 AI학과 전창재 교수가 일선 대학에서 시행하는 AI 교육 현황과 주요 관심사항을 공유했다. 마지막 '스마트 캠퍼스 구축' 시간에는 각 사관학교에서 추진 중인 AI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 사업을 발표했다.

김학교장은 환영사에서 "AI 기술이 지휘 통제, 정보, 기동, 화력, 방호, 작전지속 지원을 포함하는 6대 전장 기능 곳곳에 영향을 끼친다. 장차 군 전쟁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각 사관학교가 AI 교육과정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제한사항, 발전 방향을 공유·논의해 미래 국방 AI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사는 올해 2월 군 최대 규모 복합 AI 교육시설인 'KMAI(Korea Military Academy AI)'를 개장하고, 7월에는 AI·데이터 과학과를 신설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원준 기자

묻고 답하며...차륜형 장갑차 완성도 높인다

방사청, 온·오프 소통 강화 추진
사용자 요구 신속 처리 창구 개설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지난 11일 무기체계 사용자와의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체계 완성도를 높이는 구상을 밝혔다.

방사청은 육군 보병부대 기동화의 핵심인 차륜형 장갑차 사용자와 온·오프라인 소통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소요군)와 생산자(업체)가 직접 소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을 추진 중이다. 방사청은 과거 사용자의 질문과 개선 요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창구를 개설해 후속 사용자들에게 교훈과 노하우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프라인 소통을 위해서는 『차륜형 장갑차 운용성 향상을 위한 양산 간 품질관리 사

례』를 책자로 발간했다. 이 책자는 차륜형 장갑차 전력화 이후 운용부대의 운용 이력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방사청은 먼저 배치된 부대의 장비 운용 중 고민과 시행착오가 후속 배치부대에 공유돼 향후 장비 운용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조현기(육군준장) 기동사업부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의견수렴을 위해 전력화 부대를 대상으로 야전 순회 활동을 지속하는 등 사용자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용자 소통은 무기체계의 신뢰도를 높여 차륜형 장갑차가 더욱 우수한 무기체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법무법인YK

해군 법무부장 출신
변호사 **김영수**

주요 업무분야

- 군형사(군사경찰, 군검찰, 군법원)
- 군인사(징계, 현부심, 보직해임, 인사소청)
- 군형정소송 · 국가소송

주요 경력

- 전)해군 법무부장
- 전)해군인권센터 센터장
- 전)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선임 부장군판사
- 전)해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
- 전)성폭력예방·관·군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 1668.0232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수원·인산·청원 전국 상담가능

KakaoTalk
더블스페이스

1면 '빅데이터 기반 군수 혁신'에서 계속
중군교는 효율적인 군수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꾸준히 강구할 방침이다. 군수 분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중군교는 최근 군수 분야 전문과정 교육생 37명과 전문교관 9명을 대상으로 한 코딩(Coding·주어진 명령을 컴퓨터용 언어로 입력하는 것) 데이터 교육을 완료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교육생들은 총 8주의 교육과정 중 40시간의 데이터 코딩 교육을 받았다. 입교 전에는 6시간 분량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했으며, 교육 중에는 스마트러닝 체계에 탑재된 '인공지능 코딩을 위한 실용 파이썬 교육·실습'도 마쳤다.

교육생들은 AI 전문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권영선 교수의 교육을 듣고, 직접 코딩한 결과를 토대로 군수업무 활용 및 분석 방안을 토의했다.

중군교 박일영(대령) 교수부장은 "교육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율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교육 성과를 확인한 만큼 내년에는 관련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안보의 모든 것

KOOKBANG dema.kr

인트라넷 kdd.dema.mnd.mil